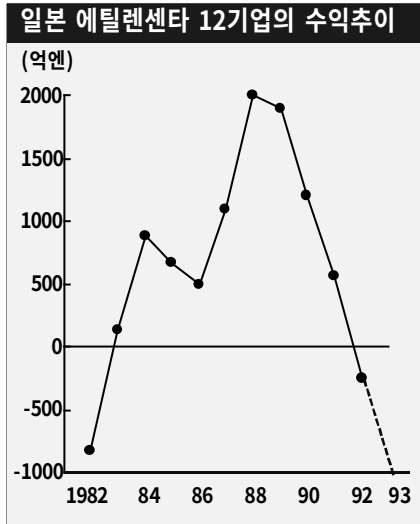


일본, NCC 적자 사상 “최악”

93년도 경상적자 1000억엔 돌파 ... 내수정체 · 엔고 겹쳐



일본 주요 에틸렌 12개 기업의 93년도 실적이 오는 6월 말 집계될 예정으로 있으나 三井石化, 三菱化成을 제외한 10개 기업은 똑같이 경상적자가 증대될 전망이다.

93년 적자규모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던 82년도의 820억엔의 경상적자를 상회하게 될 것은 확실해지고 있고 1000억엔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국내경기의 부진을 배경으로 내수의 정체, 공급과잉에 따른 제품가격의 하락, 가동률의 저하, 엔고에 따른 수출채산의 악화 · 수입압력의 증대 등 악화요인이 겹쳐 각 기업의 실적은 최악이 될 전망이다.

92년도에 흑자에서 적자로 전락한 기업은 住友化學工業, 三菱油化의 2기업이다. 또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三井石化에서도 70억엔 정도의 감수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三菱化成도 수지가 팽팽한 현실이다.

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과거 3년동안에 신규 대형투자를 하지않은 기업의 이익감소폭은 적고 대형투자를 한 三菱油化, 出光石化 등의 이익감소폭은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4/6/6>